

트럭 타고 휴전선 넘어 유라시아 횡단길 공연 연다

광주 시작 50개 도시 순회 공연 밴드·작가·화가 등 20명 참여 민간 문화계 평화염원 결과물 코리아·유라시아 앨범 발매 26일 음악진흥센터서 쇼케이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은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회 공연을 연다. 지난해 11월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린 공연 모습.

지난해 3월부터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문화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창작 워크숍'을 열어왔다. 이 워크숍은 지난해 11월 출판한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이하 코-라시아)의 준비 과정의 하나로 열렸다. 코-라시아는 18t급 트럭을 타고 휴전선을 넘어 시베리아, 러시아 모스크바, 독일 베를린까지의 횡단길에 공연을 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주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 50개 도시를 돌며 횡단을 위한 여정을 한다. 밴드·작가·화가 등 뜻이 맞는 20여명(팀)은 워크숍을 통해 영감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다.

코-라시아는 최근 워크숍의 첫 번째 결과물인 음반을 내고 오는 26일 오후 8시 남구 사동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지홀에서 쇼케이스를 갖는다.

앨범은 총 7곡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앨범 제작에는 코-라시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밴드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동주), 우물안개구리, 기타리스트 박성연, 피아니스트 장혜란, 민중가수 김원중이 함께 했다.

앨범 첫 번째 곡인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는 김원중씨가 작사·작곡한 노래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평화통일을 향한 지역 예술인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다.

앨범 제작과정에서 연출을 맡은 박성연



'코-라시아' 앨범

씨는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 런'을 만들어 아내인 장혜란씨와 직접 노래를 불렀다. 프롤로그 밴드 프롤로그의 리더 최성식씨는 직접 강원도를 답사하며 아시아 대륙 31개국을 연결하는 자동차도로망 '아시아 하이웨이'의 필요성을 음악으로 역설했다.

오영재 작가의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라는 시에는 우물안개구리가 음을 입혀 노래했다. 10여년 전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오 시인은 '우리는 돌아갑니다 헤어질 때 형제들이여 /울지 맙시다 살아서 못 보는 영원한 이별 아니오'라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에 담았다. '연차 좀 씹시다'(우물안개구리), '한반도'(박성연), '나는 바이크 타고 시베리아에 간다'(김원중·한보리) 등 노래도 음반에 이름을 올렸다.

"코-라시아 앨범에 담긴 곡들은 워크숍에 참가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윤미경 동시작가가 평양말을 빌려 시를 써 오면 뮤지션들이 선율을 붙이는 방식으로 노래가 나오죠. 한반도 허리를 가르는 155마일(250km) 휴전선 철조망을 뚫고 북녘 땅을 밟아보자는 문화적 퍼포먼스의 첫 걸음이

라 말할 수 있습니다."(박성연) 지난해 6월 창립한 비영리단체 코-라시아 이계양 이사장은 "남북 경색 이후 처음으로 민간 문화예술계 차원에서 이뤄진 평화 염원 운동의 결과물"이라는 데 이번 음반 발매의 의의를 두고 있다.

"코-라시아는 광주 뮤지션들의 자발적 참여와 300여 시민들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죠. 음반을 통해 세상에 나온 음악들을 바탕으로 섬처럼 살아 온 한반도를 유라시아와 문화로 연결하고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쇼케이스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음반은 공연장과 코-라시아 홈페이지(korasiago.com)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62-651-081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시조 지형 흐름 한눈에 연창권 시인 평론집 '존재의 기척' 발간

"시조는 '시절가조'(時節歌調)의 준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현장에 가치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 독자반응비평의 일종인 주제비평에서는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자들이 모이게 되므로, 유원지의 행락객들처럼 매우 우연한 기회에 대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필자는 이들에게 대화를 주재하는 집사 역할을 했을 뿐이다."

연창권 시인(광주교육대 교수)이 현대시조의 독자반응비평을 주제로 평론집 '존재의 기척'(고요아침)을 발간했다.

시조를 쓰고 연구하는 문인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저작물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조시인 뿐 아니라 중앙문단에서 활발하게 시작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작품도 다루고 있어 시조 지형을 엿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시조와 기후적 상상력', 2부 '시조 TEXT, 그 기표들', 3부 '개성적인 미감과 소통의 방식', 4부 '시조의 현장성과 맥락', 5부 '현대시조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

1부에는 시조 연구에 매진했던 지난 시간들의 고민과 성과가 담겨 있다. 2부

에는 독자반응비평의 관점에서 독자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었던 시조와 그에 관한 글도 수록돼 있다. 3부와 4부는 각각 주로 계간평이나 특집 형태의 글, 단평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5부 시조 관련 논문이나 논평들은 시조론 전개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특히 글을 쓰면서 언제나 대화적 과정인 독서 당시의 시간을 떠올린다. 그의 말대로 "글 혹은 텍스트는 스스로를 개방하면서 간절히 이해되기를 바라는 정신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성출신 시인은 한국 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조가, 1996년 서울신문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박용철 문학상, 중앙시조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조집 "그리움이 때로 힘이 된다면", "햇살의 길" 등과 학술서 "집 없는 시대의 길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찾아가는 예술단' 25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립예술단

광주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예술단'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교향악단, 창극단, 발레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등 광주시립예술단은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단'을 진행한다.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교도소, 병원 등 예술단체의 공연이 가능한 기본 공간 및 설비를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 공연에 필요한 장비임차와 출연료, 식비, 교통비 등은 예술단 측이 부담한다.

신청을 원하는 광주·전남권 단체·기관은 오는 25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를 참고한 뒤 신청서를 전자우편(shbin1225@korea.kr) 등으로 내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62-613-836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일 소외 청소년 초청 한식조리 체험

광주 전통문화관 '풍류노리'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진행하는 전통문화예술체험 '풍류노리'가 올해도 소외 어린이·청소년과 함께한다.

전통문화관은 지난 9일 인애빌 어린이를 초청해 이예섭·민경숙 명장의 음식 체험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4회 열린 풍류노리는 각 분야 무형문화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통 음식·공예·한복체험으로, '초등생 생일상 만들기', '중고교생 진로체험·교육' 등으로 꾸며진다. 오는 23일에는 (주)영무건설 후원으로 노틀담 형제의 집 청소년과 함께 한식조리가능사 시험에 나오는 음식을 만들어본다. 문의 062-232-159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 4등급... 지난해보다 한등급 상향

문체부·예술경영센터 평가 개선방안 연구 지원 혜택

지난해 열렸던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 18)가 시범 평가를 진행했던 2017년보다 한등급 오른 4등급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평가를 신청한 15개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아트페어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2017년과 마찬가지로 1·2등급은 없었으며 3등급은 한국국제아트

페어(KIAF)와 아트부산이 받았다. 광주는 지난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으며 2017년 3등급이었던 대구아트페어와 신규 평가를 신청한 서울 화랑미술제가 4등급을 받았다.

부산국제아트페어와 부산미협국제아트페어, 서울아트쇼, 아시아호텔아트페어, 아시아프 등 10개 행사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문광부는 지난 2014년 35개였던 아트페어가 2017년 49개까지 늘어나는 등 난립 양상을 보이자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아트페어 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

했고, 지난해 본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박영택 경기도 교수, 고충환 평론가 등 6명의 심사위원은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진행. 운영·경영(운영조직의 전문성·안정성·작품정보 공개 등), 규모·수준(참여화랑 수·작가 및 작품 수준 등), 성과·환류(관람객수·작품판매액·홍보실적 등) 등 20개 세부 지표로 평가했다.

문체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 예산 등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국제아트페어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지원은 받게됐지만 미술은행 작품 구입의 경우 규정

강화로 3등급부터 주어짐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2019 아트광주는 모두 4억5000만원의 예산(국비 1억 8000만원·시비 2억 7000만원)으로 진행되며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최근 심사를 마친 행사 진행 수탁기관은 보조금 심사까지 마무리되는 22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는 가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또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누리집(www.k-artmarket.kr)에 작품가격을 공개하는 등 아트페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